



3월의 기도

- 봄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혼 구원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얼어붙은 대지 위에 새싹이 돌아나듯이 선교지 구석구석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현지인들의 마음 밭에 잘 심겨,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조화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시오.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우리의 나라와 세계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시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재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빛과 희망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소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열린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9)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나아갈 길이 환히 보이면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지만 그 문이 닫히면 갈 길을 몰라 절망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으며 삶의 모든 문이 다 닫히고 절망의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인 휘슬러 씨(1834-1903)는 청운의 꿈을 품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 공부했지만 화학 점수에서 낙제하여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열등의식으로 몸부림치다가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손이 둔하고 서툴러 놀림을 당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밥벌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기가 그림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의 그림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문이 닫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린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rch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 보는 DCEM 2006년 해외성회 <대만 영적추수 특별성회>



우상승배의 전통이 짙은 대만을 영적 각성을 촉구해 아시아 중화권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일군 데에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조용기 목사의 헌신과 성령운동의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본지는 대만을 성령의 폭풍으로 휘몰아치게 했던 2006년 '대만 영적추수 특별성회'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중국선교의 교두보가 될 대만복음화를 위해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2006 풍성한 영적추수를 위한 특별성회'가 2006년 10월 26, 27일 이틀 동안 대만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DCEM이 주최로 열린 당 성회는 대만을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350여 개의 교회가 참석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소망과 비전을 재차 확인했던 성회였다. 특히 이날 성회는 마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임재와 열기로 충만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된 동 성회는 기사

와 이적이 크게 일어나 대만사회와 교회에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준 특별 성회로 기록됐다.

영적추수를 위한 특별성회는 이틀 동안 4천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받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등 믿지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속출했다. 또한 휠체어에 몸을 싣고 성회에 참석한 5명의 성도들은 성회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 대만대학교 종합체육관을 찾은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며 성회를 맞이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입주의 여지가 없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 체육관은 성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느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체육관 측은 예상치 못한 인파로 인해 급기야 양쪽 컨퍼런스 홀을 개방하고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강단이 내려다보이는 2층 복도와 난간에 어렵사리 자리를 잡고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를 경청하기도 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시작된 조용기 목사 초청 영적추수를 위한 특별성회는 시작부터 성령의 열기와 임재가 가득했다.

특히 이날 성회에는 대만 땅에 창궐한 악의 영이 떠나가도록 대만복음화를 위하여 큰소리로 15분동안 기도하며 대적했으며 대만 교회간의 협력과 부흥,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성회에 참석해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목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대만은 90% 이상이 불교, 도교, 유교가 혼합된 독특한 중국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대만의 개신교 비율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개신교의 이 같은 성장은 1980년 1월 21일 대만에서의 첫 성회를 시작으로 대만 성회를 꾸준히 인도해 왔던 조용기 목사의 오순절 성령운동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줬으며 복음주의 단체들의 잇따른 집회를 통하여 더욱 가속화하였다. 그렇게 발화된 복음의 불씨가 전 세계 중화권 디아스포라는 물론, 중국 14억 인구가 있는 본토까지 복음화시키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길이 되길 소망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어느 곳을 보아도 미래를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사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꽃도 입히는 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을 입히지 않겠냐고 불안한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미래를 책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맡기고 믿으라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만난 다윗

하나님을 만나 보아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친 다윗의 경험을 보아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를 대적하여 쫓아버리거나 죽여 버린 것이 그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으로 둘러싸여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을 때, 다른데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마음속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체험해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침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지라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되어서 믿음이 굳건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베드로는 물고기로 잡으러 떠났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무너지고 풍비박산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자 믿음이 끊어줄랐습니다. 흠여졌던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체험이 가져온 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복음을 전하여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한국과 온 세계에 알려진 것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을 임하셨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방언을 안 해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해야 진짜로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성령이 오셨어도 방언을 안 하면 오셨는지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3.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만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을 지은 필립스 목사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크대로 따르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체험을 한 만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2만 명 넘는 지원병들이 왔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며 패배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승리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말하고 꿈꾸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보이지만 우리 등 뒤에 같이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경험을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경험하고 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 말이 아닌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

두 나라의 전쟁 믿음의 기도 통해 영적전쟁에서 승리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5:10)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다면 바로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왜 핍박이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니 세상과 마귀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간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용서와 의, 화해와 사랑, 치료와 축복, 천국과 영생이 넘쳐 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원하든, 원치않든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6:12,13)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나라는 하늘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반면 하늘나라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영적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흑암에 대한 광명의 삶이요, 불의에 대한 의의 싸움이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싸움이요, 세상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의’즉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려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

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 전쟁하는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그와 함께 우리를 끊임 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자꾸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영적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워 이겨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탄약을 준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도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예비해야 하겠습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